

일본은 왜 한국과 다른가

조명철
고려대 사학과 교수 / 고려대 박물관 관장



1. 이해할 수 없는 일본

최근 한국과 일본은 독도, 위안부, 역사교과서, 과거사를 둘러싸고 감정적인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외교관계도 악화일로로 걷고 있다. 한국인의 반일감정은 원천적으로 30년이 넘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국가를 상실한 민족적 굴욕에 기인하고 있지만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지금까지 국가간의 화해를 이루지 못한 이유를 굴욕의 역사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한국인에게 일본은 여전히 의문 투성으로 가득찬 나라이기 때문이다.

같은 아시아권에 있으면서도 일본만의 특이한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본인은 왜 천황을 신처럼 모시는가. 고대 제정일치 시대라면 모를까. 천황이 평범한 인간으로 밝혀진 지금에도 천황에 대한 특별한 관념은 사라지지 않았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천황을 비난하는 기사는 물론 천황을 코미디나 농담의 소재로도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쇼와천황은 아직 신이 되지 못했지만 그전의 메이지 천황은 이미 신이 되어 신사에 모셔져 있다.

그렇게 보면 가는 곳마다 신사가 널려있는 것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원래 불교국가인 일본에 절이 많은 것은 당연하지만 토속신을 모시는 신사가 전국에 8만에 이르고 등록되지 않은 신사까지 합치면 정확한 수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이다. 더욱이 그 많은 신사가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도 없이 모두 유지되고 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첫인상은 도쿄같은 대도시의 깨끗함과 사람들의 친절이다. 하지만 소도시나 농촌에 가보면 도쿄보다 훨씬 깨끗하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란다. 파리의 세느강이 오물로 뒤덮여 있던 시기에도 인구 100만명의 에도(江戸)는 서양인이 보고 기절할 정도로 깨끗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매일 목욕하는 습관이 몸에 밴 일본인은 스스로도 청결한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고대에 다양한 목욕 시설이 있었고 중세에는 한증막까지 존재했다. 에도시대가 되면 대중목욕탕이 유행하기 시작한다. 한국

의 대중목욕탕이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일본인의 친절은 세계가 인정하는 대목이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예의바른 일본인은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순진한 한국남성들이 처음 보는 일본여성의 지나친 친절에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일도 종종 있다. 보통 일본인보다 몇배는 친절한 백화점의 여점원에게 걸리면 빈손으로 백화점을 나오지 못하는 것이 착한 한국남성의 속성이다.

하지만 그렇게 상냥한 일본인이 한국을 침략하고 미국을 상대로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접하면 당혹스러워진다. 일본은 1931년 만주를 점령하고 6년 뒤에는 중국 본토를 휩쓸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한 도시에서만 30만명을 학살하는 잔혹함도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몰고 미군함에 돌진해서 자폭하는 가미카제 특공대에 전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렇게 친절하고 유순한 일본인이 어느 순간 갑자기 잔인해지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는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헌신짝처럼 버린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밖에도 일본에 관한 궁금점은 얼마든지 더 있다. 순진한 어린 아이들이 친구를 죽음에까지 몰고 가는 이치메(집단 따돌림) 현상, 성숙한 독서 풍토 속에서도 만화에 심취해 있는 일본인, 명확하게 노(NO)라고 말하지 못하는 일본인, 지진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놀랄 정도로 질서를 잘 지키는 일본인.

2. 일본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

국가와 민족이 다르니 한국과 일본이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도 한국인은 그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든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하나는 현재

에 있고 다른 하나는 과거에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정치, 외교, 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풀어야 할 문제를 너무 많이 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갖가지 행태를 충분히 납득하지 않고서는 일본에 대처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이 붙어있기 때문인데 그런 이유로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지구 반대편의 아마존 지역에 사는 어느 부족에 대한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인은 일본에 대한 모든 의문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고 싶어한다.

두 번째로 한국인은 대부분 일본이 지역적으로 매우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인종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한국과 닮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한국인의 조상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 일본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에도 과거 한일 양국의 조상이 같다는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이 있었지만 이 논리는 조상이 같으니 굳이 민족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일종의 민족말살 정책에서 나왔다. 하지만 한국인이 갖고 있는 생각은 전혀 다르다. 한국과 일본의 조상이 동일하다는 의미보다는 일본은 우리 조상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나라다라는 생각에 가깝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일본은 우리 조상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일본의 본질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편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본의 특수성은 본래의 모습에서 변질되었거나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짓는다. 이런 믿음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기 힘든 부분도 있다.

실제로 역사시대 이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한반도로부터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들다. 물론 남방 해양이나 북쪽 홋카이도를 통해서도 적지 않은 인간이 일본열도로 들어왔겠지만 새로운 역사나 고급 문화를 만들어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중국대륙으로부터 일본열도로 직접 건너가는 경우도 당시의 항해술로는 흔한 일이 아니었다. 상식적으로 일본에 고급 문화를 전파할 정도의 대규모 이주는 한반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좀더 나가면 일본은 결국 우리 조상이 바다를 건너가 만들었다는 주장에 자연스럽게 다다른다.

우리 조상이 일본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한국인에게는 상식적으로 보여도 일본인에게는 민족적 자존심과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궤변이다. 하지만 일본을 누가 만들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비슷하기는커녕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천황이 어떻게 신

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과 '천황은 당연히 신이 될 수 있다'는 세계관의 간극은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느냐'는 힐책과 '어떻게 자신의 속내를 그렇게 쉽게 드러낼 수 있느냐'는 반문 사이에 존재하는 사고방식의 간극은 쉽게 메워지지 않는다.

3. 일본을 설명하는 '틀'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틀(방식)이 필요하다. 이 틀은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표출된 현상과 내재된 본질을 동일한 논리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인은 청결함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매일 목욕을 한다. 일본민족은 순수한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고대부터 지금까지 만세일체 천황이 다스려왔다. 일본 요리는 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리기 때문에 사시미와 생선초밥이 발달했다. 원인과 결과가 도착되어 있고 현상이 본질을 미화시키는 말도 안되는 설명방식이다.

원인과 결과, 현상과 본질을 한번에 모두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틀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여기서 2천년간 일본인의 삶의 터전이었던 '지형'을 분석의 틀로 제시해본다. 지형은 땅의 겉모양으로 산과 강, 평야 같은 것들이다. 우선 지형 중에서 산과 강만 간단히 살펴본다.

얼핏 보기에 한국인과 일본인의 구분이 가지 않듯이 일본의 산과 한국의 산도 비슷하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전 국토의 80퍼센트 이상 산지이고 평야가 별로 없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한국인과 일본인이 완전히 다르듯이 산도 그렇다. 남한에는 2천미터 넘는 산이 없지만 일본에는 3천미터 넘는 산이 여러

개 있다. 한국은 설악산을 비롯해 오르지 못할 산이 하나도 없지만 일본은 등산 가능한 산과 불가능한 산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만큼 산이 험악하다. 한국은 바위산이 많아 등산 중에도 시계가 확보되지만 일본산은 숲이 우거져 산 속에서 길을 잃기 십상이다. 이것만 보아도 일본의 산과 한국의 산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도 그럴것이 한국은 전형적인 노년기 지형으로 침식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완만한 구릉형태의 낮은 산과 나무가 자랄 수 없는 바위산이 전국에 널려있다. 반면 일본은 침식의 초기 단계인 유년기 지형이라 바위산이 별로 없고 산들이 험악하고 계곡은 깊어 동네 뒷동산도 쉽게 오를 수 없다. 해발 836미터의 북한산을 매주 올랐다고 해서 일본산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한국의 산과 일본의 산은 그저 '山'이라는 문자를 같이 쓸 뿐이지 실제로는 전혀 다른 존재다. 등산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남자 친구를 3년이나 기다리다 그 산 앞에서 '오겐키데스카'라고 작별인사를 보내는 여자의 절규는 일본산의 무서움을 제대로 알아야 공감의 된다(영화 '러브레터'의 라스트신).

강 또한 한국과 일본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노년기의 한국 강은 낮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완만하게 흐르다 보니 강폭은 넓어지고 수량은 많아지고 꾸불꾸불 S자 형태로 흘러간다. 이에 반해 유년기의 일본 강은 2천미터의 고지에서 출발하는데 바다까지의 거리가 매우 짧다. 이런 이유로 일본 강은 급경사를 매우 빠른 속도로 직선에 가깝게 흐르다 보니 좁은 강폭에 급류를 형성하게 된다. 배를 띄울 수 없는 일본의 강을 보면서 자란 사람이 충주에서 한양까지 조세미를 싣고 120km를 왕복한 조세 운반선의 존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일본의 산은 높고 계곡은 깊으니 인간이 산을 넘어 어디론가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다. 더욱이 하천도 인간의 이동을 가로막고 있다. 한국은 산이나 강이나 인간이 넘지 못할 절대적인 장벽은 아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수월하게 육지로 이동할 수 있다.

이처럼 산과 강은 근대에 이르러 터널을 뚫고 교량을 놓아 평탄한 길로 바뀔 때까지 인간의 삶을 규제하는 절대적인 조건이었다. 극복할 수 없는 조건 앞에서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순응하는 길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순응하지 못할 경우 도태당해야 했다. 타협불가능한 조건으로서 산과 강은 인간의 삶에 어떻게 얹히는가.

4. 지형으로 풀어보는 일본

앞에서 보았듯이 한국 산과 일본 산의 차이는 영화에서 공감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강이 다르면 강의 노래가 달라지고 시가 달라진다. 이처럼 산과 강에 대한 서로 다른 느낌과 관념은 전혀 다른 문화를 탄생시킨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지형의 차이는 곧 양국의 문학의 차이로 이어진다. 특히 일본에서는 산과 강을 경계로 서로 고립된 지역들이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한다. 실제로 중국 역사서 '한서(漢書)'의 '지리지 연지조(地理志 燕地條)'에 "낙랑에서 바다를 건너가면 왜인들이 있는데 백여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다.(夫樂浪海中有倭人 分爲百餘國)"고 기술한 지역은 일본 전체가 아니라 놀랍게도 규슈만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떻게 규슈에만 백여 개의 나라가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마 '한서'의 필자도 중국에서 볼 수 없는 너무도 특이한 현상이라 기록에 남겼을 것이다. '한서'에는 "산과 섬을 의지해서 나라를 만든다.(依山島爲國)"는 기록도 있는데 산을 경계로 이 쪽과 저 쪽에 다른 나라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미 한반도에서는 지역이 광범위하게 통합되어 삼국시대에 들어

섰는데 일본에서는 통합은커녕 시간이 흐를수록 각 지역이 독자적인 세력으로 분열되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세력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무력을 갖추고 자체적으로 무사를 육성하기 시작했다. 지형 때문에 생겨난 제약으로 일본은 근대에 이를 때까지 수십에서 수백에 이르는 독립된 세력으로 잘게 세분되어 있었다. 전형적인 지방분권의 형태이고 아시아에서 찾아보기 힘든 봉건영주제를 보여준다.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역사적 차이는, 한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통일 국가에 의한 강력한 전제왕권, 중앙집권체제가 등장하는 반면에 일본은 서양의 봉건영주제에 유사한 다이묘(大名) 영주제, 지방분권제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이다. 지방분권적인 사회구조는 지형의 특성이 초래한 결과지 일본인이 창안해낸 통치제도가 아니다. 만약 이런 현상을 놓고 아시아에서 일본만이 유럽식의 역사발전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한다면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서 민족의 우월성을 호도하는 거짓논리가 만들어진다.

일본을 통일한 토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왜 전국을 다시 2백 명이 넘는 다이묘에게 나누어주는 바보같은 짓을 했느냐는 질문이 천 년 이상 지방분권적인 사회만 살아온 일본인에게서는 더이상 질문으로 성립하지 못한다. 이미 천 년 이상 중앙집권적인 역사만 경험한 한국인에게 실재는 분열되어 있지만 동시에 일본이라는 강력한 정체성을 지닌 일본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겠는가.

한국이 일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설명보다는 일본적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주는 '틀'을 되도록 많이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필자소개

고려대 사학과 석, 박사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인문과학연구과 박사
일본사학회 이사, 역사학회 이사
고려대 사학과 교수
고려대 박물관 관장

주요 저서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4권』, 한일역사공동위원회, 2005. (공저)
『기억의 전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공저)
『일본인의 선택』, 다른세상, 2002. (공저)
『일본근세근현대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1. (공저)
『해양제국의 침략과 근대조선의 해양정책』,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0. (공저)